



일본성마리아 병원 연수기(2차)

김 태 훈

(베리놀병원 진단방사선과)

1. 성마리아 병원

2주간의 연수!

시간이 너무 짧아 연수라기 보다는 견학이라 해야 옳은 표현인 것 같다. 처음가는 해외 여행이라 기대감도 컸지만 그만큼 불안감도 컸다.

처음 만나는 일본사람 만큼이나 서먹했던 9명의 연수생들과 성마리아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곳이 병원인가”하고 생각될 정도였다. 병원을 나타내는 표지판 하나 없었고 울타리도 없었다. 병원 건물과 건물 사이로 여러개의 도로도 나 있었고 병원 건물 사이에 일반 주택도 눈에 띄었다. 또 한쪽 구석에서는 응급센터 신축공사로 약간은 어수선한 느낌을 받았다.

1430병상의 작지않은 규모의 병원이 조용하다 싶을 정도로 환자는 많지 않았다. 일일 평균 외래환자수가 1500-1800명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환자가 작아서 병원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병상 가동률이 98%-99%라는 말을 듣고 조금은 이해가 되었다.

아직 OCS(ORDER COMMUNICATION SYSTEM)는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방사선과에는 CR(COMPUTED RADIOGRAPHY) SYSTEM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었다. 2000년 6월쯤에는 PACS(PICTURE ARCHIVEMENT COMMUNICATION

SYSTEM)이 가능하다고 한다. 내년에 연수를 가시는 분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방사선과의 장비와 검사기술은 CR SYSTEM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만, 환자를 대하는 방사선사나 간호사, 기타 다른 병원직원들의 모습이 매우 친절하게 느껴졌다. 아마 일본어 특유의 억양과 그들의 말버릇 때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2. 내가 만난 일본사람들

11월 2일은 일본에서는 문화의 날이라고 하여 공휴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은 후쿠오카 시내관광을 하기로 하고 병원 근처에 있는 역에서 JR선을 타고 후쿠오카로 향했다. 다행히 일행중에 일본에서 생활했던 분이 있어 별다른 걱정없이 관광을 할 수가 있었다. 우리가 가고자 했던 텐진역 주변의 신사와 절, 쇼핑센터는 지도만 들고 찾아 가기엔 힘이들어 중간중간 많은 일본사람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을 때 그들의 친절함을 볼 수 있었다.

바닥에 길을 그려가면서 가르쳐 주시던 할아버지, 자기가 타야할 버스정류장을 몇 번이나 지나쳐 가면서 안내해 주신 아주머니, 후쿠오카역에 가는 길을 물어 보았을 때 반대 방향이었지만 함께 가자고 했

던 여학생.....

그들은 참으로 친절하고 상냥했다. 거리도 깨끗했고, 우리가 보기엔 불품없는 장소나 건물들도 잘 가꾸어 놓았고 또 그것을 무척이나 아끼는 것 같았다.

3. 그리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연수 기회를 주신 가톨릭병원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매리

늘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짧은 일본어 실력이었지만 성심성의껏 연수를 도와주신 일본 성마리아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견문의 기회들이 저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일신우일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